# 설 연휴 "집 앞이 쓰레기장" 눈살

광주지역 아파트·주택가 제때 수거 안돼 악취 진동 보행자 통행 방해…"과대 포장지 근본대책 세워야"

올해 설 연휴에도 쓰레기로 몸살을 앓았

곳에 마구잡이로 버려진 선물 포장지와 각 종 쓰레기들이 제때 수거되지 않아 온갖 악취가 진동했기 때문이다.

27일 광주지역 쓰레기 수거업체와 주민 등에 따르면 설 명절 연휴기간인 지난 24 일부터 26일까지 3일 동안 관내 비상근무 한 환경미화원 995명이 특별근무를 통해 청소와 가정용 쓰레기를 수거했다.

이들은 명절 기간 동안 새벽 6시부터 오 설명절기간동안아파트·주택가등곳 후 3시까지 9시간동안광주의 민원 지역 과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 등을 돌며 자 체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과 쓰레기 등을 수거했다. 또 수시로 민원이 접수되면 지 역을 찾아 청소작업도 진행했다.

>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광주시에 접수 된 쓰레기·수도 민원은 총 114건으로 24 일 42건, 25일 46건, 26일 26건이다.

하지만 지자체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 고 일부 아파트와 주택가 밀집 지역엔 넘 쳐나는 쓰레기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. 게다가 올해는 설 명절 전후로 비가 내리 면서 각종 쓰레기와 음식물 등이 뒤엉키면 서 악취도 진동했다.

실제 광주 북구 동림동 한 아파트 단지 로들어가는길가에는쌓인각종쓰레기들 과 선물 포장지 등이 도로 위에 나뒹굴었

또 북구 용봉동 유흥가 주변 인도 위 가 로수는 술집 등에서 버린 쓰레기들이 쌓여

특히 부피가 큰 종이 및 플라스틱 상자 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 사고로 이어질 수는 아찔한 상황도 목격됐다.

시민 김 모씨(31)는 "선물세트로 들어 온 박스와 포장지의 부피가 너무 커 집에 둘 수 없어 밖으로 꺼내놨다"며 "설 명절 을 맞아 가족들을 만나는 건 기쁘지만 매 번 연휴가 끝나는 날에는 쓰레기를 처리하 는 것이 힘들다"고 하소연했다.

조모씨(31)는 "이번 명절 선물로 과일 이나 건어물 등 박스가 많이 들어왔는데 박스 안에 스티로폼, 포장재 부피가 커 선 물로 포장재를 받은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들었다"며 "해마다 과대 포장지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다. 적극적 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"고 목소리를 높



27일 오전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인근 대로변에 각종 폐기물과 명절 쓰레기들이 수북히 쌓여 있다.

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"가족들이 서로 오랜만에 만나는 대 명절인 설을 맞 아 시에서도 쓰레기 처리 등을 위한 대책 반을 운영했다"면서 "정책적인 대책도 필

요하지만 그보다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 리지 않는 높은 시민의식이 절실하다"고 /김종찬 기자



"윷놀이 재미있어요" 26일 오후 설연휴를 맞아 국립광주박물관을 찾은 시민들이 전통민속놀이인 윷놀이 체험을 하고 있 /김생훈 수습기자

## 자연과학고에 교육연구정보원 이설

내년 착공, 2023년 개원

광주시교육청이 4차 산업혁명 · 인공지 능(AI) 시대를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해 진 로체험센터를 설립한다.

특히 현 교육연구정보원을 시교육청 청 사로 활용한다는 계획으로 수 백억원에 이르는 예산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. 2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북구 오

치동 자연과학고 내 유휴 부지 2만1,600 여㎡를 활용해 진로체험센터 건립 사업을

시교육청은 올해 세부 추진 계획을 세 우고 내년 공사에 착공, 2023년 개원할

시교육청은 교육청 청사와 함께 있는 교육 연구정보원도자연과학고 부지로 옮 예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고 및 특별 기기로 하고 조직과 공간 구성 등 방안 마 련에 착수했다. 시 교육청 뒷편 1만2123 ㎡ 규모의 교육연구정보원은 이설하면 시 교육청의 부족한 업무공간과 교육시설로 재활용될 예정이다.

시 교육청은 기존 본청 건물과 정보원, 주차장 등을 이용한 최적화된 활용 방안 을 고민중이다.

문제는 예산 확보다. 시 교육청의 계획 대로 진로체험센터 설립과 교육연구정보 원 이설이 동시 추진될 경우 400억~500 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전망이다.

장휘국 교육감은 "진로체험센터 설립 교부금을 교육부에 요청할 계획이다"며 "지역 교육의 발전을 위해 시의회 및 국 회의원 등 정치권 차원에서도 예산 확보 를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하겠다"고 밝혔 다. /조기철 기자

# 설 명절 '익명의 기부천사' 선행 훈훈

### 광주·전남에 후원 물품 나눔

광주·전남 지역 곳곳에서 얼굴과 이름 없는 '기부천사'들의 선행이 이번 설에 도 이어졌다.

27일 동구 등에 따르면 익명의 기부자 는 최근 명절을 앞두고 배달업체를 통해 전날 구청 현관에 250만원 상당의 쌀 20 kg들이 50포대를 전달했다. 2016년 추석 부터 시작된 익명의 쌀 기부는 같은 방식 으로 8번째 이뤄졌다.

지난 22일 광산구 하남동 행정복지센 터에서는 지난 10년간 17번의 익명 기부 가 행해졌다.

익명의 기부자는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인 이날 새벽께 사과 50상자와 떡 100kg 을 센터 주차장에 두고 갔다.

2011년 20kg들이 쌀 35포대를 시작으 로 매년 명절 과일과 떡 등의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. 또 지난 23일에는 익명의 독지 가가 배달업체를 통해 첨단1동 행정복지 센터로 과일을 보냈다.

그는 2018년 추석 이후 매 명절마다 나 눔을 이어왔다. 사과 200kg과 딸기 5kg 등 상자 45개 분량을 보낸 그는 전화 통화 를 통해 "설 명절을 쓸쓸히 보내는 소외 이웃이 없도록 써달라"고 당부했다.

같은 날 화순군에도 익명의 과일 선물

이 도착했다. 그는 2018년 설 명절 직전 사과 50상자를 시작으로 매년 배와 사과 를 번갈아 가며 몰래 두고 가는 것으로 전

이날 전달된 과일은 5kg 사과 40상자 로, 상자에는 "오늘도 감사합니다. 어려 운 차상위 계층과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 용해 주십시오"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다.

화순군 관계자는 "어려운 경제 여건에 도 매년 어려운 이웃을 몰래 돕고 있는 익 명의 기부 천사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" 며 "기부자의 마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 록 가장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하겠다"고 /이보람 기자

## '검찰 로비' 1억 받은 변호사 항소심도 실형

### 법원 "검사와 특수 관계…부당 금품 인정"

검사 출신을 악용해 의뢰인에게 '검찰 로비'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.

27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형사2부 (항소부·염기창 부장판사)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변호사의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.

호사로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중 대하게 저해한 범죄를 저질렀다"며 "금 다. 품을 돌려준점, 초범인 점을 고려해도 엄

벌이 불가피해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하기 어렵다"고 밝혔다.

A 변호사는 2017년 2~4월 사무장 병 원 사건 의뢰인 B씨에게 수임료와 별도 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.

그는 이미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정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진 상태에서 "담당 검사가 내가 안에 있 을 때 시보로 있어서 잘 안다. 주임 검사 법원은 "A 변호사는검사 출신 전관 변 에게 인사이동 전 선물 하나 주고 가라 고 했다"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

새벽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"검사장

님과 술 한잔했다. 떠나시기 전 선물하나 주기로 했으니 걱정 말라"며 유리한 처분 을 약속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하기도 했다.

A 변호사는 이 같은 말을 한 적은 있으 나 1억원은 청탁 자금이 아닌 B씨의 공사 비 조달과 병원 매각 컨설팅 비용이었다 고 주장했다.

그러나 법원은 A 변호사가 검찰 로비 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, 검 사들과 특수한 관계이고 유리한 처분을 해줄 것처럼 암시하며 부당하게 금품을 /김영민 기자 받았다고 판단했다.

# 상 가 매 매 상무지구

## ● 치평동 중심유통상가 6층【80평】② 치평동 중심유통상가 7층【60평】

(유흥주점, 카페, 노래방 적합)

- 즉시입주가, 시설비없음
- 콜롬버스영화관 바로 앞
- 감정가시세 5억원
- 매매가 2억5천만원

(유흥주점,카페,노래방적합)

- 즉시입주가, 시설비없음
- 콜롬버스영화관 바로 앞
- 감정가시세 5억원
- 매매가 2억5천만원
- 광산구 첨단 쌍암동상가 10층 【24】평
  - 매매가 7천 8백만원
    - (임대완료 -보300, 월44만원)
- ❷ 용봉동 원룸 매매【룸15개, 주택1】 - 매매가 6억 9천만원

010-4667-9820

# 장성토지 [급매]

## 광주에서 20분

- (장성군청~장성댐사이) ⇒ 국도도로 12m접(앞면30m)
- 1,000평 매매시세 10억
- └ 급매가 6억 (융자 3억 가능)
- 300평분할가능→ 급매가 2억원, (융자1억가능)

(전원주택,물류창고,사무실 투자적합)

### ■ 추천물건

- ① 장성읍 용강리
- 국도변접함(760평)
- → 매매가 8천5백만
- ② 장성 야은리(코너) 664평
- → 3억5천만원
- ③ 장성 야은리(식당) 182평
- → 5억5천만원 ④ 장성 야은리(답) 379평
  - →1억1천3백
- 추천물건
- ⑤ 장성 장성읍 덕진리(1,243평)
- → 1억6천1백만원
- ⑥ 장성남면월정리(1093평)
- → 매매가 6억5천만
- ⑦ 담양읍메타세퀘아도로접(1470평)
- →매매가 8억2천만 ⑧ 광주서구서창(197평)
  - 시청에서20분거리 →매매가 5억9천만

# 010-6670-9800

# 경매교육[기초반·특수반]

- 기초 실전반 모집 (무료강의 병행) ● 기초이론 + 실전
- **2** 중급 실전반 ● 중급이론 + 실전
- 3 고급 특수반 모집
- 4 전문반 모집
  - 책상, 컴퓨터 제공 • 주1회 물건분석 스터디
  - 이제 경매만이 큰 수익이 될 수 있습니다. (유치권, 법정지상권)
- ※10억짜리 부동산 → 3억에 가능

## 경매투자 연30%수익가능 • 근저당 설정시 연20% 가능

- 추천물건
- ① 장성 남면 녹진리 4,620평 → 매매26억원
- ② 북구 운암동 빌라25평 9천8백만원
- ③ 서구 농성동 상가주택 1억3천4백만원

010-4667-9820